

자원봉사 불자 84% “활동만족”

연꽃마을 2005명 조사...여성 93% - 40대 25% - 고졸이상 37%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1년에 3일 정도를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상당한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홍보·프로그램 다양화 등 불교자원봉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꽃마을이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무료병원 등 산하 13개 시설의 자원봉사자 2005명에 대한 활동내용을 분석, 3월 2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당 1년 평균 46.7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1년 평균

자원봉사시간 38.4시간보다 8.3시간이 많은 것이다. 조사는 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 간의 활동내용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자 2005명 가운데 불자는 1700여명이고, 나머지는 타종교인이다. 이번 분석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재가복지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2천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불교자원봉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교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단체봉사팀 53개 팀을 제외한 1,952명의 봉사자 중 여자가 1,805명(92.5%)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50대(18.1%), 30대·60대(9.7%), 20대(4.7%)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고졸(24%)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12.9%), 중졸(7.3%) 순이었다.

이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4%로 매우 높았으며, 85%가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5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신념에서'(7.9%)라는 응답은 의외로 적었다. 이는 종교에 관계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불자들 사이에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신심에 호소하는 기존의 자원봉사 참여유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

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38%가 자원봉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 엄격한 불교자원봉사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경로별로는 주위소개에 의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신문·방송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각각 3% 내외에 그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사분야도 노년봉사(93.7%)에 치우쳐 있어 의료·행정·교육·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토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대로 조계사는 3월 27~29일 3일간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인원 2천여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정대불사에 참여한 불자들은 법제도를 돌려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배우고 익힐것을 서원했다.

서울 강남불교련 창립

회장에 원혜스님

80년대 이후 도심교의 전형을 정립하며 큰 성과를 일궈낸 서울 강남구에 지역불교연합회가 구성됐다. 강남불교연합회는 3월 31일 서울 봉은사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회장에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을 선출했다. 부회장은 총지사 주교 법등정사와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을, 감사에는 행원심인당 주교 해일정사

와 태고종 불국사 법성스님을 선출했다.

봉은사를 비롯 강남포교원, 능인선원, 금강선원, 보리사, 총지사 본산 총지사, 태고종 불국사, 진각종 행원심인당 등 관내 20여개의 대규모 사찰이 참여하는 강남불교련은 연합봉사행사, 지역사회사업 등 화합과 전법의 조직화로 서울 도심의 불교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청주 파라미타 문화학교 개설

청주 파라미타청소년회회는 문화재안내 고급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한 문화학교의 교육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까지의 강의와 월 1회의 답사로 꾸며진다.

교육과목은 불교건축, 불교미술, 탁본, 성곽, 문자생활, 관광개발, 답사 등이며 교육생들은 주로 충북지역 문화유적 관리상태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수료후에는 파라미타청소년회회의 문화유적 전문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강료는 월 3만원. (043)294-0107 김주일 기자

연주암 쓰레기 ‘골치’

헬기 수거 등 대책 무심

녹색연합 ‘불법 매립’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은 3월 28일 관악산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연주암 및 등산객들로부터 나온 생활쓰레기를 헬기를 이용해 수거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생활쓰레기 헬기수거와 병행해 분리수거 및 쓰레기 절감을 유도하고, 과천시와 협조해 청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연주암 경내 등에 방치된 건축폐기물 및 폐자재 역시 헬기를 동원해 수거하기로 했다. 과천시가 설치한 불법 쓰레기 소각

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각로 침거를 과천시에 요구하고, 분리수거를 통해 종이류 등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연주암 오수처리시설은 환경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관리하기로 했으며, 현재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거름화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오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등산객을 위한 식사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3월 26일 성명을 통해 '관악산 연주암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곳곳에 양초와 불상, 유리병 등 수십 톤의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연주암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근 약수터와 식수원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경내지 수용 부당 헌법소원

부산 선암사 “문화국가주의 위반”

부산 선암사 토지 수용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선암사(주지 원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국가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송진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선암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결정 취소처분 상고심에서 "공용수용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의 재

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위헌 심판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익사업 시행자를 전통사찰의 주지에 비하여 우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 문화국가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은 기자

안티불교 사이트 주소만 바꾼채 운영

“교계 대책마련 시급”

3월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에 의해 폐쇄된 다음카페의 안티불교(본지 311호 23면 기사 참조)가 인터넷 주소만을 바꾼 채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활동을 재개한 안티불교는 미국의 상용통신망인 지오시티(geocities.com)에 개설되어 있지만 △조작된 불경 △가난해지는 불교 △불교의 폐단 △승려들의 범죄 모습 △폰에 찍힌 조계종 △부처는 귀신 등의 메뉴는 다음카페 안티불교의 내용과 똑같다. 사이트

개설자 역시 'onias'라는 아이디(ID)를 사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는 불교 비방 사이트를 폐쇄해도 비방 자료나 그것의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대응 조치가 없는 한, 다른 곳에서 동일한 내용의 불교 비방 사이트가 개설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사이버범죄수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왜곡하는 안티 사이트의 수는 줄지 않고, 사이버테러는 계속될 것"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승가대-동국대 체육대회

중앙승가대 학생회(회장 인오)와 동국대 석림회(회장 각성)가 7일 오전 10시 김포화사 운동장에서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김포화사 이전을 기념하고, 학인스님들의 화합과 학문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축구 피구, 줄다리기, 팔씨름 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북한에 농업기술 지원 확대

한국 JTS 올해부터

'농업지원이 식량지원보다 10배의 효과가 있다.'

한국 JTS(이사장 법륜)는 3월 28일 북한 농업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크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술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TS 이지현 사무국장은 "98년부터 북한에 농자재 및 농약, 비료지원과 농업기술지원을 계속해 온 성과가 식량지원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올해 북한농업지원사업은 1,000정보 규모의 농장 자립이 가능하게끔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감은사지 삼층석탑

안전조사 곧 실시

최근 부실 복원으로 탑 기단부가 내려앉은 경주 감은사지 등 삼층석탑(국보 제112호(본지 306호 23면 기사 참조))에 대한 정밀 안전조사가 조만간 실시된다.

문화재청은 3월 8~10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의 긴급 안전진단 결과 탑신 기단부 갑석 모서리 세 곳의 틀림현상과 갑석 균열현상 등의 문제점이 모두 확인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내 재조사를 통해 보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월 28일 밝혔다. 조사단은 문화재위원과 석탑 관련 구조 안전·석질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북장사 극락보전 범당 중건 모연문

웅장한 산세 힘차게 솟아오른 천주산 길상지에 자리잡은 북장사 극락보전은 여행(呂行) 화상이 현종 원년(1660)에 불사를 시작하여 8년 만에 완공한 범당입니다.

본래의 범당 건물은 오랜세월 비바람에 부연은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범당 내부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대세지보살상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숙종 2년에 모신 이 불상은 경남·북 일원에서 제일 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進王)이 부처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모셨다는 전단 향나무로 조성한 영험스러운 아미타여래좌상입니다.

사바에서 고통받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신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모셔져 있는 극락보전이 비가 세고 허물어져, 산세들은 조석으로 내려보며 울고, 지나는 참배객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따름입니다.

생각건대 범당 없는 부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복전(福田)을 짓지 않고 무슨 불과(佛果)를 얻을 것인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한줌의 흙을 쌓아 태산(泰山)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 정성과 힘을 묶어 극락보전을 다시 세우기로 부처님께 간절한 원을 세웠습니다. 이 발원으로 신도들은 정재(淨財)로서 공덕(功德)을 심을 것이요, 수학자(修學者)들은 복전당(福田堂)을 얻을 것입니다.

청진대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여!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을 기울어 이 거룩한 불사(佛事)에 선연(善緣)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3월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논리계좌 743058-51-004377 북장사



만동불사 및 괘불진건법회안내

극락보전 원만회향을 위해 북장사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보물로 지정된 높이 13m의 북장사 만동불사 및 괘불진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길 양망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고속버스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

교동편